

기전대김보라 교수, 한국리듬운동학회 우수학술연구상



전주기전대학 김보라 교수(운동재활과)가 경 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리듬운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리듬운동 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연구자에게 수여 되는 상으로, 연구의 독창성, 학술적 기여도, 연구 방법론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날 학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보라 교수는 체육학적 및 리듬운동 발전에 공헌해 온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그동안 연구논문 및 정책 연구과제를 다년간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일 여성체육학자를 대표해 한국여성 체육학회에 오피니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외에 2023년 한국리듬운동학회 표창장, 2021년 한국체육학회 남상남 학술상 및 한국리듬운동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김보라 교수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학자로서 매우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체육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전북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사매의용소방대, 안전복지의 날 행사



남원소방서와 사매의용소방대는 지난 4일, 사매면 월평리 덕평마을을 대상으로 안전복지 서비스 운영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안전복지의 날은 남원소방서 전 직원 급여의 일부분을 공제해 조성한 기금으로 매달 지역사회의 화재취약마을을 선정해, 소화기와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타 복지 물품을 마을에 기부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소방서와 사매의용소방대, 김종선 사매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겨울 남원시에서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 화목보일러 화재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홍보와 교육도 병행되었다.

황수연 사매 의용소방대장은 “농촌이 고통받았을수록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용소방대로서 안전에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검산동 지발협, 검산동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정은)는 지난4일 김제시 목화회관 2층에서 검산동 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검산동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검산동 사회단체 회원 및 검산동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부 라인댄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고고장구, 주민 참여 노래자랑 등 많은 즐길거리가 함께한 풍성한 행사였다.

한남수 지역발전협의회 고문은 “검산동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모두 열의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검산동 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린이의 안전·건강 위한 급식 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성과 보고·공로상 수여 등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과 내빈,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우수 직원 및 연합기관에 대한 공로를 시상했다.

송철규 연구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조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북대가 지역 사회의 변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장해 지역 노인들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센터가 전주시의 미래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옥 센터장은 “영양 지원과 위생·안전 관리,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급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민주평통 정읍협의회, 8.15통일 독트린 구현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협의회장 김동환)가 지난 4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4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8.15 통일 독트린> 대내외적 구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평화통일 활동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환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착화, 미·일 리더십 교체기 등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제시하는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변역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청년취업일타강사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임경숙 선임 취업지원관, Reboot Action Plan 상담 사례 발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임경숙 선임 취업지원관이 5일 서울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일타강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취업을 위해 각 대학에서 실행 중인 정책 및 상담·취업 컨설팅 노하우를 펼치는 경진대회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는 올해 처음 열렸다. 이에 총 56명의 컨설턴트가 응모해 사전 심사를 통해 12명의 후보자를 선발했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상황과 사례별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표하고, 청년심사단이 현장에서 질의응답 후 투표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임경숙 선임 취업지원관은 4년의 실패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Reboot Action Plan 상담 사례를 발표해 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임경숙 선임 취업지원관은 “이번 사례는 실패를 재평가해 대안 목표를 설정하고, 청년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내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성공 경험으로 전환하는 상담 기법”이라며 “청년들의 잠재된 역량을 함께 발견하고 이끌어주



는 취업지원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숙경 센터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에서부터 취업 성공까지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용노동부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 운영 대학으로 추가 지정되며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 성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치매안심센터-농기센터, 치매인식개선행사 진행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4일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치매 초기증상, 예방 방법, 일상적인 관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특히, 치매예방수칙 3·3·3을 이용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명의 기부자, 김제시 성덕면에 100만원 전달

김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5일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성덕면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 기부자는 “넉넉하진 않지만 성덕면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덕면 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8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9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일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